

알음알이 소화 안되면 독약된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많이 먹일 줄만 알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도통 모르는 것과 같다. 삼승의 수행자들은 모두 이런 무리들로서, 먹을 줄만 알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른바 '알음알이가 소화되지 않으면 독약이 되어, 끝내 생멸 가운데 유전한다.'는 것이다. 진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러한 쌀이 없다.'고 하셨다.

알음알이를 녹이려면 돈오견성을 해야 한다. 일체의 드러난 형상이 본래 환(幻)이라는 것을 배워서 안다 하더라도, 스스로 체득한 경험이 없다면 착각에 불과하다. 평생을 분별하며 살아왔어도, 막상 깨달는 순간에는 알음알이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되 한 바 없이 하고 사는' 무애행의 힘을 지닐 수 있다. 이것은 막행막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만일 깨달음의 힘을 지니지 못하고 알음알이를 바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생각 생각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껏 모아온 모든 알음알이를 깨끗이 비워 버리고 다시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공(空) 여래장(空如來藏)이다. 이 여래장에는 한 티끌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곧 '유(有)를 부수는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신 것'이다. 또 '나는 연등불의 처소에서 조금도 얻은 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오로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알음알이를 비우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 다만 안팎으로 생각이 폭 녹아서 어디에도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다면, 이런 이가 '일 없는 사람[無事人]'이다.

영가대사의 '증도가' 첫 대목에, "배움을 끊고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구절이 나온다. 입제선사도 '무사(無事)의 사람'을 강조했다. 선문에서는 폭 녹아 할 일이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를 같은 삼승의 가르침은 근거에 따라 치료하는 약이어서, 편익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때에 따라 임시로 시술하신 것이므로, 각각 말씀이 다르다. 다만 본뜻을 요달하면,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한 근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글자에 얽매어 알음알이를 버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실로 여래께서 법을 정해 놓고 설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중문에서는 이런 방편의 일은 따지지 않는 것이니, 다만 마음을 그칠 줄 알면 곧 쉬는 것이요, 다시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금강경에 '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無有定法]'는 가르침이 나온다.

마음이 곧 부처

배후가 물었다.
"예로부터 마음이 부처라고들 하는데, 어느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21>



범어사 주지

알음알이 바탕으로 살면
생각에 걸려 넘어질 수 밖에
알음알이 깨끗이 비우고
다시 분별 없으면 '공(空)여래장'
의지하거나 집착 없으면
'하되 한바 없는' 무애행이며
일없는 사람 '無事人'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네게 몇개의 마음 있느냐"

"범부와 성인 경계 없으면"

마음밖에 다른 부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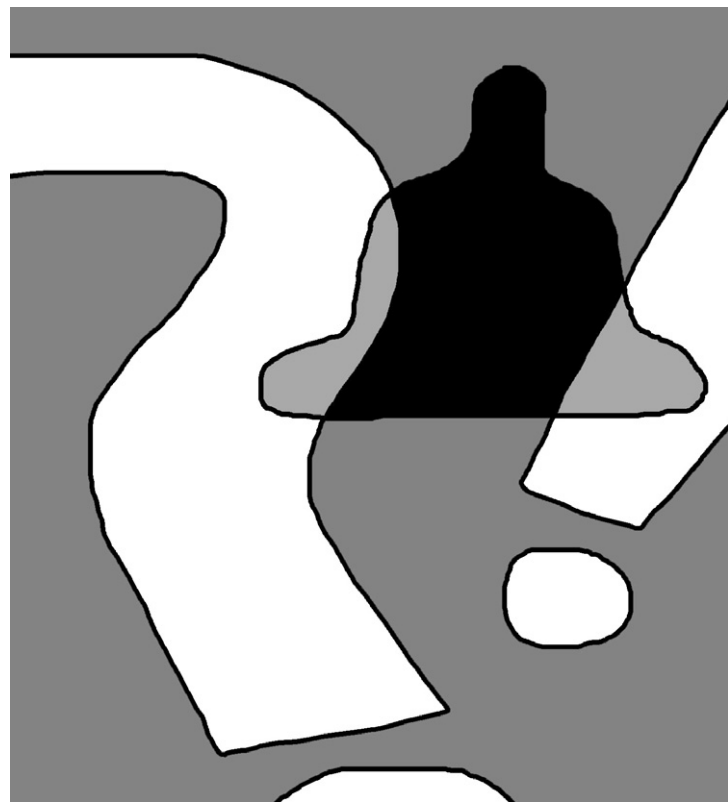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음이 부처인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부처라는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물음이다.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까, 아니면 성인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한 질문이다. 비록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어느 곳에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방금 삼승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범부와 성인을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서는 어찌하여 그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배후의 입장에서는 경전에 분명히 삼승을 말하고 범부와 성인이 구분되어있는데, 황백 스님은 없다고 하니 혼란스러운 것이다. 성품자리를 깨달으면, 범·성이란 상대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인 줄 안다. 하지만 깨달은 힘이 약하다 보니, 성품은 높치고 범·성의 분별에만 매달리면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려 든다.

"삼승의 경전에 분명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모두 허망하다.'고 하셨다. 그런데도 너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거꾸로 '유(有)'에 집착하고 있구나. 허망한 것을 무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망령되지 않겠느냐? 망령되기 때문에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다. 네 만약 범부의 생각과 성인

의 경계를 없애기만 한다면,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란 없다.

돈오를 했지만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 성인과 범부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결국 성품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설사 성품을 봤다 하더라도, 오래 익힌 알음알이가 남아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돈오하는 순간에 앞뒤가 끊어진 모습을 철견 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서 범부와 성인을 따로 나누지 않게 된다.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임을 단박에 일깨워 주셨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여 범부와 성인에 집착하고 밖으로 배달리며,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미혹케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곧 부처' 라고 하셨다.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면, 즉시 육도의 다른 곳에 떨어진다.

한 생각 어지러우면,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일체 그림자가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변하며 없어지지만, 성품의 본바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경전을 익히면, 한결 수월하게 이해되고 방편도 익힐 수 있다. 하지만 모르고 배우면, 배우는 그림자가 또 만들어져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안팎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후에는, 다만 스스로 쉬면 그만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㉑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護念)해 주시는 경전이다

<아미타경>

환타지의 세계

타이완의 불광산사(佛光山寺)에는 정도 동굴이라는 인공동굴이 있다. <아미타경>에서 묘사하는 극락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두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극락정도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정도에 갈 수 있나요?" 함께 갔던, 한 여학생의 질문이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학생이 있구나!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만큼 현실세계와 다른 모습에 뭔가 느낌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른다. 극락세계에는 일곱 겹으로 난간이 둘러쳐져 있고, 일곱 겹으로 그물이 쳐져 있고, 일곱겹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일곱 개의 보배 연못이 있고, 그 안에는 여덟가지 공덕의 물이 가득 차 있다. 연못의 바닥에는 금가루로 덮여 있다. 누각이 있는데, 금, 은, 유리, 파려, 자거, 적주, 마노 등의 온갖 보배들로 장식되어 있다. (...) 이러한 극락의 묘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차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환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아미타경>의 환타지는 극락의 묘사뿐만 아니라,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 정토만이 아니라, 석가모니불이 계시는 이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동, 서, 남, 북, 그리고 상방(上方)의 다섯 방위에 각기 여러 명의 부처님들이 계시다. 그리고 그 많은 부처님들이 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는 이 경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극락의 모습이나 이 오랑의 부처님들이 저마다 아미타불을 찬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가히 입체적인 만다라(mandala)의 세계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환타지는 만다라다.

환타지의 미학
드라마나 소설, 그리고 영화가 픽션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것은 그 픽션 안에서 어떤 삶의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삶의 진실은 허구가 아니지 않나.

이러한 예술의 미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대승불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아미타경>을 비롯해서, 많은 대승경전은 그러한 형식적인 장치를 통해서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미타경>에서도, 이러한 형식적인 장치는 지루하리만큼 많다. 극락만이 아니라,

오방세계에 다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들은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이름이나 말씀을 찬탄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미타경> 역시, 그러한 부처님으로부터 찬탄되는 대상이 된다.

<아미타경>에서 펼쳐지는 형식적인 측면은, 일종의 환타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내용이 펼쳐져 있다. 그렇기에 오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다 동원해서 이 <아미타경>을 칭찬하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 불가사의한 공덕의 세계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째서 그렇게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고 호념(護念)하시는 것일까? 우리 중생들이 "이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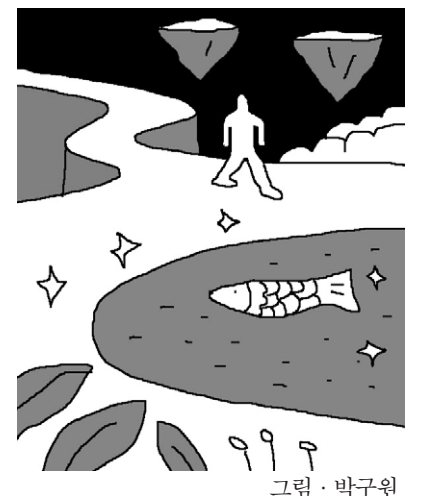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는 아미타불의 이름이나 이 경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듣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만 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무슨 사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금강경>에도 나오는, 이 '호념'이라는 말을 나는 '사랑'이라 옮겨본다. 48가지 원을 세운 아미타불을 비롯해서,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분들의 사랑, 즉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니겠는가.

이 길의 저 끝에는, "위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들의 사랑 덕분에 "모두 물러서지 않는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극락에서! 이러한 믿음은 내용적인 진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미타경>은, 그 안에 아무리 환타지적인 허구가 펼쳐져 있더라도 진실지고(眞實之教)인 것이 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여
제2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비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석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미지불공, 관음시시

▷ 과 목 : 시련, 삼신이음, 104위신중적법, 시다림, 49재천도이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시염불, 구병시시, 생전예수제의문

▷ 복창계,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계(나비춤), 오공양작법, 화형

모집인원
• 선착순 : 약간명 ※ 개강 이후 2기 졸업시까지의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3년 6월 4일(화) - 6월 8일(토) 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강일
2013년 6월 8일(토)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오.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모십니다

소승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고해사 주지 도경입니다. 소승은 禪大韓佛敎 曹溪宗 종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에 함께 종단 운영에 동참하실 원로대덕 큰 스님과 도심 및 초야에 소속없이 홀로계신 모든스님께 밖으로는 불국정도 구현과 안으로는 친목 및 내부 결속을 다져 부처님 법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많은 지도편달 바라옵고 뜻있는 모든 스님 대환영하며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959-1825, 010-3114-1825
사전에 전화로 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최초 부처님이 모셔진 곳!

선대한불교조계종 苦고 解해 寺사
예비모임일 : 2013년 양 5월 30일 오후 3시

- 종단운영 및 불교사업 토론
- 예비모임에 참석하신 스님위주로 운영됩니다.
- 종단에 가입하실 스님 접수도 받습니다. (사찰등록증, 임명장, 종단회원증, 운영지침 드립니다.) (무속인, 철학원, 명상수련원, 기공원, 심의 후 가능)
- 도심속기도도량 고해사에서 함께 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바로 사용하는 秘傳 실전 구 성 학

- 단기 7일 완성
- 속성 2~3일 완성! (지방속성가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포교용으로 적합 교육 후 바로 실전가능! 안되면 될때까지! 공부와 진검 승부의 장, 실전 구성학 카페 준비중! 년 1-2회 최고권위자 세미나 개최 준비중! 아주 배우기 쉽고 간단하고 실전에 강합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